

경제

끝 모르는 채소값

고랭지채소 태풍으로 공급 단절...상추·풋고추 한달새 2배 급등

태풍 '산바'로 오를대로 오른 채소 값이 더 상승할 전망이다. 태풍 '볼라벤' 이후 강원도산 채소의 존용이 높았던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강원도를 강타한 이번 태풍으로 인해 채소 물량확보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도 등 배추 산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김장물까지 들쭉날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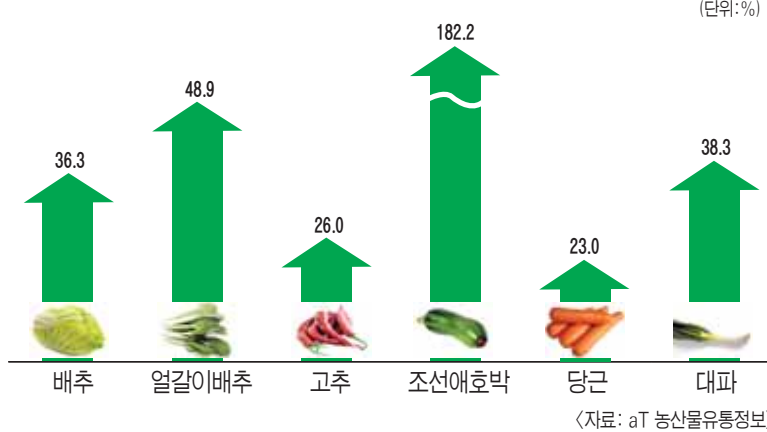
17일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주요 농작물 출하량이 줄면서 일부 채소 도매가격이 한 달 전보다 크게 올랐다.

태풍 '볼라벤'으로 이미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추가 상승까지 우려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하락세를 보였던 풋고추(10kg) 도매가격은 현재 6만원으로 전월 4만8000원보다 25%나 올랐고 대파(1kg)도 하루 사이 12.9%(400원)이 오른 3500원에 거래됐다.

이미 고공행진을 이어온 상추(적·4kg)와 호박(조선애호박·8kg)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한 달 전보다는 185.7%, 182.2%씩 오른 4만원과 3만5000원에 판매됐다.

■ 최근 한달새 광주지역 채소가격 인상률



(자료: aT 농산물유통정보)

한달 전 880원에 거래됐던 고랭지 배추(1kg)는 1200원으로 일주일 사이 9%(100원)가 올랐다.

이번 태풍이 강원도와 영남지역을 강타하면서 배추값이 크게 폭등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본격적인 출하를 앞둔 고랭지 배추 등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면서 안정세를 되찾던 가격이 또다시 들쭉날쭉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엔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고랭지 배추와 무는 추석이 이후 출하를 앞둔 생육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10월 중순까지 공급부족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 비축량과 농협이 재배계약을 통해 확보한 2000톤으로 추석이후 배추 수요를 맞추기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광주공판장 고성 경매사(채소 담당)는 "태풍 '볼라벤'으로 채소 가격이 오를만큼 올라 더 오른진 않아도 이번 태풍으로 인해 올랐던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다"며 "특히 고랭지 배추는 작년보다 작황이 좋지 않아 물량도 부족한 데 태풍까지 겹쳐 가격이 20% 가량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전남농협 원산지 집중 점검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30일)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전남지역 300여 농협 하나로마트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및 식품안전관리 점검에 나섰다

전남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명절 성수품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식품 등 보관 방법,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전남본부가 '식품안전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또 이날부터 전남본부와 시·군 농정지원단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이원호 경제본부장은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올 추석에는 식품안전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최근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도우려 명절 선물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기동기자 song@



"한가위, 가족과 와인 한잔"

17일 (주)광주신세계 지하 1층 와인코너에서 직원들이 한가위를 앞두고 최고급 와인인 '미셀클라 컬렉션'세트를 7만원에 선보이고 있다. 이 와인은 프랑스 와인 양조시장에서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 미셀클라이 포도 경작 및 수확, 블렌딩, 병입과정에 직접 참여해 만든 제품으로 와인 애호가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주)광주신세계 제공

스마트폰으로 카드 대체...연말 출시

앱 결제·가맹점 수수료 낮아 업계 관심 집중

신용·직불카드를 대체할 새로운 방식의 결제수단이 올해 말 출시될 전망이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한 데다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낮출 수 있어 신용카드 위주의 결제시장 판도를 뒤흔들 것으로 예측된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전자금융업계가 이르면 내년 초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내년 초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내년 초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비스 시행을 위한 기술은 이미 완비된 상태"라며 "오는 11월6일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하면 곧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제방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별로 다양하다. 예컨대 바코드 기반 거래는 고객이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아 자신이 보유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바코드가 생성되고 이를 바코드 입력기에 알리면 직불결제가 이뤄진다.

자동응답전화(ARS) 기반은 고객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결제 시 등록된 번호로 전화가 온다. 이때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통장에서 결제 금액이 빠져나가게 된다. 이 서비스의 큰 장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보다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 발급비용이 들지 않고 직불결제라 연체 우려가 없기 때문에 카드사에 비해 가맹점

수수료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재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평균 수수료율인 1.5%보다도 낮게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 소득공제도 신용카드보다 많이 받을 전망이다. 현재 신용카드 공제율은 20%, 직불카드 30%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공제는 업체가 국제청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티머니(교통카드) 결제 공제율인 30%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국과 업체는 결제가금액을 두고 이견을 조율 중이다.

금융위는 보안상의 이유로 결제가금액을 30만원으로 설정했지만, 전자금융업체들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상향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추석에도 의무휴업 지켜주세요"

광주시, 대형마트·SSM에 준수 요청

광주시는 오는 23일 네 번째 일요일에 실시될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을 앞두고 이마트, 롯데, 홈플러스 등 광주지역 대형마트·SSM 책임자와 자치구 경제과장 연석회의를 17일 개최하고 의무휴업 준수를 요청했다.

광주시는 이날 회의에서 추석절을 1주일 앞두고 의무휴업을 실시함에 따라 대형마트·SSM의 매출손실이 예상되지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 부득이 의무휴업을 조기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23일 의무휴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형 마트 측은 "추석절을 앞두고 강제휴업을 하면 손실이 매우 큰 뿐만 아니라, 입점 상인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30% 할인행사 OFF SALE.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ON) 정품만 취급합니다.

신비의 섬 '제주 탐방' 투어. 3년 연속 '올해의 항공사상' 수상 아시아나항공과 함께하는 짜릿한 제주여행. 왕복 2박3일 1인 ₩229,000~. 제주도골프투어-항공골프패키지 1박2일. 환상제주 여행문의.